



## 타이거즈 7 영구 결번

타이거즈의 '7번'이 역사의 번호로 남는다.  
 KIA 타이거즈가 4일 이종범과 면담을 갖고 '야구 천재'의 백넘버를 영구결번하기로 결정했다. 영구결번으로 프로야구를 대표한 두 거물 타자 김중모, 이종범을 거쳐 7번은 타이거즈 전설로 남게 됐다.  
 KIA에서 7번을 단 선수는 30년 역사에 단 세 명에 불과하다. 1982~1992년까지 김중모가 7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웠고,

1993년 투기 이종범이 그 번호를 물려받았다. 주니치로 떠나기 전인 1997년까지 7번을 달았던 이종범은 한국에 복귀한 2001년 다시 7번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섰다.  
 장일현이 잠시 7번을 달기는 했지만 김중모와 이종범이 27년간 달아온 전통의 번호다.  
 이종범은 "(7번은) 김중모 선배님과 둘이서 대표했던 번호다. 나중에 아들에게나

물려줄까보다"는 농담을 하며 특별히 생각했던 번호다.  
 이종범의 은퇴와 함께 타이거즈의 역사를 대표했던 7번은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다.  
 김중모 동성고 감독은 "종범이가 나중에 타이거즈 7번들끼리 따로 모임을 하자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두 명밖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웃으며 "이종범과 함께 7번도 떠났다. 아쉽고 섭섭하다"고 말했다. 또 "내 선수생활을 대표했던 번호였다. 누구보다 야무지고 훌륭한 후배가 그 번호를 물려받아서 고맙고 행복했다"고 떠나는 후배에게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자유인 이종범 "KIA로 돌아올 것"

무등야구장서 선동열 감독·이순철 코치 만나  
 은퇴 발표 과정에서 쌓인 마음의 앙금 풀어내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자유인으로 돌아간다.  
 KIA 타이거즈 이종범이 4일 정들었던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아 마음의 짐을 털어냈다.  
 이날 오전 김조호 KIA 단장과 만남을 갖고 은퇴식 등을 논의한 이종범은 오후 선동열 감독을 찾아 은퇴 발표 과정에서 쌓인 마음의 앙금을 풀었다.  
 이종범은 개막 엔트리 제외 통보를 받은 뒤 지난 31일 선 감독과 김 단장과 면담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 이종범이 일방적으로 은퇴를 발표하면서 갈등양상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후배 이종범이 먼저 선 감독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다.  
 감독실에서 선 감독과 10여분간 얘기를 나누는 이종범은 이순철 수석 코치와도 자리를 갖고 20년간의 선수생활을 정리했다. 라커룸을 찾아 후배들과 작별 인사도 나눴다. 이종범은 특별한 말없이 후배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떠나는 선배의 정한 마음을 전했다.  
 이종범은 "내가 있던 곳이 타이거즈이고 다시 돌아올 곳도 타이거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이를 정도는 마음이 편치 못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방송 해설가로 나설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종범은 "당분간은 자유인으로 지내고 싶다. 해설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해설 할 생각이 없다. 서울에서 화교를 다니는 딸아이를 위해서 조만간 이사를 할 것이다. 선수 이종범이 아닌 개인 이종범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구단이 제시한 플레이 코치와 코치 연수, 연봉보전을 정중히 거절한 이종범은

은퇴식과 영구 결번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종범은 "야구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그동안 돌보고, 살펴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을 만나는 등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 보고 싶다. 구단의  
 " 방송 해설가 소문 사실과 다르다 야구하느라 못살핀 가족·친구 만나고과 격려와 성원 해주신 팬들에 미안하고 감사  
 " 뜻은 정말로 고맙지만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야구에 대한 공부는 계속할 것이다"고 거절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 "구단에서 제시한 많은 조건을 거절하다보니 KIA를 떠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반드시 KIA로 돌아올 것이다"며 "갑자기 은퇴하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 팬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종범이 4일 무등경기장 포토존에서 자신의 백넘버 7번을 가리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종범은 이날 구단과 자리를 갖고 7번의 영구결번을 결정했다.

## "가자 2012"

KIA 타이거즈 마지막 리허설 끝내고 출전 준비

'호랑이 군단'이 2012시즌 불을 밝혔다.  
 KIA 타이거즈가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흥행전을 갖고 2012시즌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을 끝냈다.  
 10일 홈 개막전부터 야간경기 일정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선수단의 야간경기 적응을 위해 흥행전은 오후 6시 시작됐다. 긴 겨울잠을 잤던 조병태도 가동에 들어가면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불이 밝혀졌다.  
 오는 10일 삼성과의 홈개막전 선발을 맡을 윤석민이 백팀 선발로 나와 몸을 풀었고, 올 시즌 선발전에 합류한 좌완 박경태도 흥행전 선발로 나서 본격기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했다.  
 흥행전을 통해 마지막 실전 무대를 끝낸 KIA 선수단은 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훈련을 갖고 컨디션을 조율한다. 6일 오전 훈련이후 선수단은 결전지인 인천으로 향해 7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SK와의 2012 시즌 개막전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찬호 최고 인기남

갤럽, 프로야구 팬 1579명 설문  
 최고 인기팀은 롯데... KIA는 3위

국내프로야구 8개 구단 중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팀은 롯데 자이언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6~30일 만 19세 이상 남녀 1579명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9%가 가장 좋아하는 팀으로 롯데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롯데는 매년 이뤄지는 이 조사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인기 구단 자리를 지켰다.  
 올해 조사에서 롯데 다음으로 삼성 라이온즈(13.2%), KIA 타이거즈(11.3%), 한화 이글스(8.3%)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좋아하는 팀으로 롯데를 꼽은 응답 비율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54.6%로 가장 높았다.  
 삼성은 대구·경북에서 54.5%, KIA는 광주·전라에서 53.6%로 높게 나타났다.  
 한화의 선호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는데 박찬호, 김태균 등 복귀한 해외파를 영입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난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던 두산 베어스는 한 계단 내려앉아 5위(4.7%)에 머물렀다.  
 선수 인기투표에서는 박찬호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박찬호는 25.2%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그다음으로 오랜만에 국내 무대를 밟는 이승엽이 22.5%로 2위에 자리했다.  
 이어 오릭스 버펄로스 이대호가 3위(15.0%),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가 4위(12.9%)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종범은 5.3%의 득표율로 6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삼성이 우승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삼성이 우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21.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고향팀으로 돌아와 첫 시즌을 맞



한화 박찬호

는 선동열 감독의 KIA(7.7%)와 최고 인기 구단으로 자리 매김한 롯데(7.1%)가 있었다.  
 2010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SK는 우승 예상 구단 순위에서 4위(4.8%)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